

[보도자료]

이 자료는 2009년 2월 9일(월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“한국여성정책연구원,
한국국제협력단(KOICA) 초청으로 도미니카 공화국
공무원 및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과정 연다”**

- 다수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연구로 쌓은 지식과 전문성 전수
- 개도국 성교육 전문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기대
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배 포 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배포 날짜 : 2009년 2월 9일(월)

언론 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

(연락처: 02-3156-7296, 이메일: info@kwdimail.re.kr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은 오는 2월 8일(일)부터 2월 21일(토)까지 2주간, KOICA 초청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부 및 보건부 공무원 및 성교육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“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문화개선”을 주제로 제1차 국내초청연수를 시행한다.

**한국여성정책연구원,
도미니카 공화국 공무원 및 교사 대상 초청연수 실시**

- 주제 :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문화개선
- 일시 : 2009년 2월 8일(일)~2월 21일(토), 2주간
한국국제협력단(KOICA)
- 참가대상 :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부 및 보건부
공무원 및 성교육 교사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은 오는 2월 8일(일)부터 2월 21일(토)까지 2주간, KOICA 초청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부 및 보건부 공무원 및 성교육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“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문화개선”을 주제로 제1차 국내초청연수를 시행한다.
- 이번 연수과정은 ▲청소년 성교육 이론 ▲청소년 상담의 실제 ▲청소년 성교육과 효과적인 상담 방법론 ▲여성인력개발의 정책과 실제 ▲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 ▲상담자 양성 교육 ▲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(또는 방지)과 제도 개발 ▲여성 고등교육 정책 ▲가톨릭 청소년성교육 ▲여성가족정책 등을 주제로 하는 전문과목 교육과 국내 청소년성교육센터 견학 등의 일정으로 구성된다.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본 연수과정에서 현지 문화에 맞는 선진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미니카(공)의 여성정책의 수준 향상을 통하여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문화개선을 목표로 한다.
- 도미니카 공화국의 통계에 따르면 십대 청소년 여성의 23%가 이미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하여 매우 높은 청소년 임신율을 보이고 있고 청소년기의 임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피해가 존재한다. 청소년기 여성의 임신은 학교 교육 중단으로 인한 교육 기회 상실과 출

여성의 구직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하고 나아가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.

- 이는 청소년 대상 특히 청소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성교육 및 보건교육이 없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현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됨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은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부와 협력하여 청소년 성 및 생식건강센터 리모델링 및 국내 초청연수, 도미니카(공) 현지 지역 교육,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사업지원을 계획하였다.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8년 4월에 사전조사단의 전문가 자격으로 도미니카 현지 지원 방법에 관한 협약에 참여하였고 2008년 10월에 본 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동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주무기관이 되었으며, 2010년 12월까지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.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교육센터 리모델링, 국내초청연수, 전문가 파견을 통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사업수행 과정에 참여하여 도미니카(공) 현지에 청소년 성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에게 성교육 및 올바른 성 인지적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문가 현지 교육훈련(TOT) 및 지역별 교육 훈련(workshop) 실시, 의식제고 캠페인 운영, 여성부 역량 강화 및 관계 부처 네트워킹 강화, 기자재 통관 협조를 할 예정이다.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“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의 도미니카 공화국 공무원 및 교사들이 청소년 성교육 관련 분야의 선진적인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방법론 및 여성보건문화 등 관련 지식을 습득함으로써, 성교육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0년대 중후반 이래로, 개도국의 상호교류 증진과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해 KOICA가 벌이고 있는 국내초청연수 사업 및 국제기구의 협력 아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에 참여 및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, 세계 각국의 여성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.

한국여성정책연구원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, www.kwdi.re.kr)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,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-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,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,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.

보도자료 끝.